

동물의 세계 통해 터득하는 삶의 지혜 생생한 현장경험 바탕으로 쉽게 풀어써

—「살아있는 동물의 세계」 펴낸 김정만씨

이 책 그 사람

김정만씨(서울대공원 동물부장·57)는 33년째 같은 머리기름을 바르고 있다. 향수는 물론이거니와 한겨울

면도 후에도 화장품조차 바르지 않는다는 그가 유독 머리기름만, 그것도 같은 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대체로 후각이 우선 발달한 동물들에게 그의 체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한 인지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그의 체취에 익숙해 있듯이 국내에서 제작되는 몇안되는 TV나 라디오의 동물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우리들에게도 동물에 관한 가장 낮고 친숙한 정보제공자요 해설자이다.

그런 그가 최근「살아있는 동물의 세계」(일선기획)라는 책을 펴냈다.

“글재주가 없어서 원고를 쓸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애정을 확산시키는 일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싶어 용기를 냈지요. 학술로 굳어진 사항들을 딱딱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동물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리고 흥미있게 펼쳐보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동물들과 함께 해 온 제 경험과, 외국의 야생동물 자연서식지를 둘러보았을 때의 기억과 자료, 선진국 동물원의 기록 및 사례 등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4년 5월 창경원의 동물들을 이끌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으로 이사를 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6년여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하나씩 들춰 원고를 썼던 것이 이 책을 이루게 되었다고.

오랜시간, 탄탄한 현장경험과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일까. 이 책에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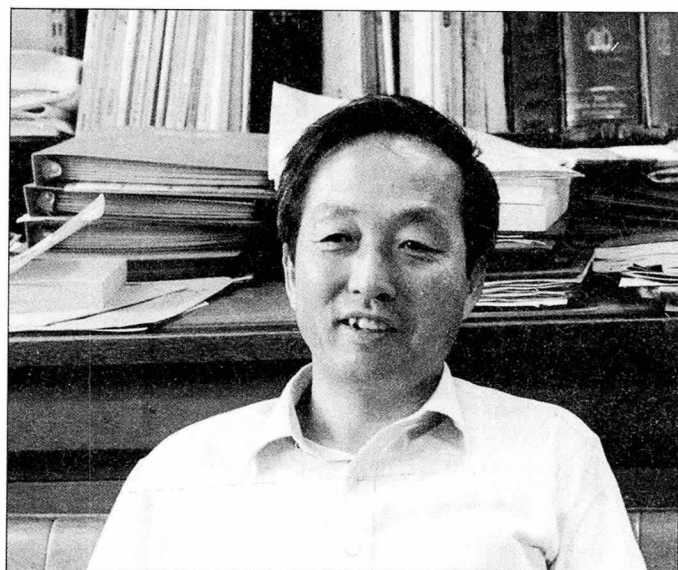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에서부터 세계 3대 희귀동물로 손꼽히는 자이언트팬더, 오카피, 붕고 등 총 60여종에 이르는 동물들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외형상의 특징으로부터 성격과 분포상황, 그리고 종족번식 방법과 생존을 위한 지혜,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 등이 그것. 동물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너끈하게 만족시켜줄 이러한 정보 외에도 이 책은 ‘여성상위시대 구가하는 오카피’ ‘고독을 즐기는 사색과 퓨마’ 등 천태만상 동물들의 생존양상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여 간결하고 유머러스하게 서술하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야생의 동물들을 환경과 조건이 다른 동물원으로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나름의 삶의 지혜를 터득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자연의 섭리, 생명에 대한 외경심 같은 것을 느끼곤 하지요. 거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들의 세계에는 거짓도, 위선도 그리고 배신도 없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한 냉엄한 질서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1958년 창경원의 동물기사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올해로 33년째에 접어든 동물과의 생활이 그에게 안겨준 교훈을 그는 이렇게 요약한다.

살아있는 꿈에서 쓸개즙을 빼내는 등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동물들 또한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인식이 우선 자리잡아야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자신의 책이 그러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라도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 박남정 기자



선인들의 지혜 깃든 고유의 건축공간 풍부한 사진 곁들여 전국의 樓 소개

—「한국의 누」 펴낸 박언곤교수

이 책 그 사람

지리한 장마 뒤의 피약별을 피하기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산과 강이 내다보이는 정자나 누정에 오르는 것이

제격일 테지만, 도처의 누정을 일일이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유난히 풍광이 수려한 곳에 세워진 누정의 독특한 건축구조와 역사, 그리고 그 기능 등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쓴 책「한국의 누」(대원사)는, 대표적인 누정의 사진이 풍부하게 곁들여져 있어 직접 가볼 수 없는 이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동양건축사를 연구하다가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에 이끌려 귀국했다는 저자 박언곤(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두평의 밀폐된 공간에서 차를 매개체로 인격수양을 도모하는 일본 특유의 茶室과 같은 공간을 우리 건축물에서 찾아보려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공간이 바로 정자와 누정이었다. 얼마전 이 책의 전편격인「한국의 정자」를 펴내기도 한 박교수에 따르면, 정자와 누정은 개인소유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단체나 공공의 소유냐 하는 데서 구분된다는데, “기생과의 주연만이 배풀어지는 향락의 장소로 잘못 인식돼온 누정을 바로 이해할 때”라고 강조한다.

남원의 광한루, 진주의 축석루, 청풍의 한벽루 등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든 누정의 소중함은, 경관이 빼어난 ‘쉼터’의 의미보다는 그 공간에서 선조들이 얻고자 한 선인의식과 인간완성에 있다는 것이 박교수의 설명인데, 이 책에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삼국사기」에 언급된 역사기록에서부터

기능의 종류, 건축계획 등이 분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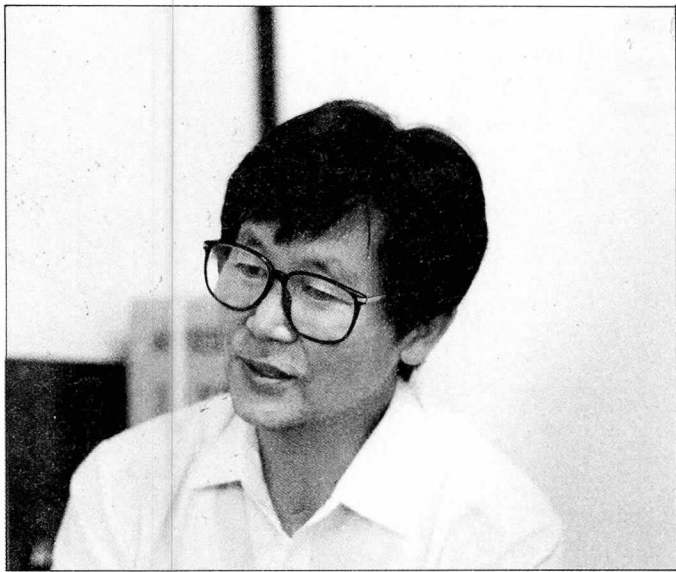
특히 현존하는 누 건축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경희루의 건축양식에 대해, “단순히 기능만이 고려된 건축물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예를들어 기둥에는 팔괘의 의미를, 3개의 방에는 천·지·인 삼재를 빗대고, 지붕을 태극으로 간주한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고

들어앉아 침잠하는 장소가 아닌 밖을 향해 열린 공간과 동화되는, 문이 없는 누정에는 문방사우와 한적들이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낭랑한 선비의 책 읽는 목소리가 울려나와 자연과 합일되는 누정문화를 이룬다. 이런 문화를 지닌 우리와,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본인과의 차이점을 느끼게 됐다는 박교수는, 현행 교과서에서조차 잘못 설명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경제발전이라는 정책에 의해 마구잡이로 해제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관심의 표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의 경우, 사대문 안의 재개발을 재검토하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기도 한 박교수는, 김포군의 민가를 실측해 군지에 자료로라도 남기기 위해 현지로 떠날 예정이지만, 점점더 자취를 잃어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가 불식되지 않는 한 자신의 노력도 소용없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 최태원 기자



문화혁명기 중국지식인의 굴곡많은 삶 휴머니즘의 가치 일깨운 중국현대소설

—「사람아, 아 사람아」 번역한 신영복씨

이 책 그 사람

중국현대
휴머니즘문학의 기수
다이 호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
(다섯수레)가 올초

새로이 번역돼 나와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대학가 주변에서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60년을 전후로 수년간에 걸쳐 중국대륙
전역을 휩쓸었던 문화혁명의 소용돌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첨예했던 이데올로기의 재단
아래 때로는 유랑자의 길로 때로는 승승장구의
출세가도를 달렸던 당시 젊은 대학생들이
20여년이 지난 1980년도의 시점에서 전혀
낯선 모습으로 만나 '문학'의 손익계산서를
점검하는 이 소설은 '자유주의 사상의
정신오염'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출간되었을
당시에도 충격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몰고왔던 화제작이다.

혁명의 열풍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는 이러한
격랑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역사적 격동
속에서 사랑과 우정, 이상과 신념은 어떤
운명을 겪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또 무엇인가를 한세대 지식인들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명료히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인간 각자의 개성은 물론
가족조차도 해체시켰으며 경제적 등급은
소멸시킨 반면 또다른 정치적 등급 속에
사람들을 몰아맨 문화혁명의 부정적 측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비록 혁명의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행해진
갖가지 비인간적 제도와 사상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진정한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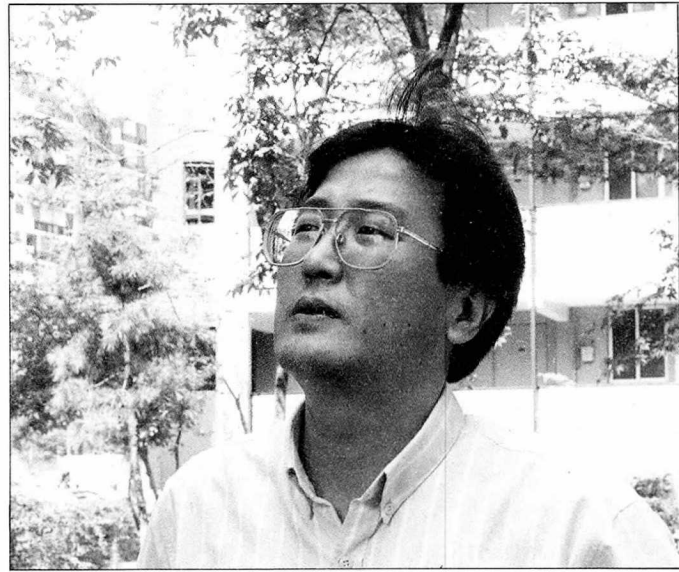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에의 열망을 주인공 호
젠후를 통해 드러내보입니다."

이 소설을 번역한 신영복씨(51, 성공회
신학대학 경제학과 강사)는 작가가
일으켜세우고자 하는 '휴머니즘'의 요체를
사회 제반의 모순으로부터 비켜선 은폐나
유화의 도구로 이용되는 인정주의 휴머니즘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나 갖가지의
정신적 명예, 미신이나 맹종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속에서 각 개인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일구어나갈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런 까닭에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흔들림없는 신념은 문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제도가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내야 할 사회와 역사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는
점이다. 또한 모든 것은 항상 변화 발전하게
마련이라는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는 인간상의
구현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수단화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의에
눈감아버리는 각종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존엄으로도,
질타하는 절규로도 들릴 수 있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소설은 전역사를 통해 불변하는
'인간다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힘겨운 해답을 들려주고 있다.

작가가 자신의 통절했던 경험에서 이
이야기를 얻어왔듯 그 작가와 흡사한 역사적
시련을 떠안았던 해박한 역사를 만나 원작을
능가하는 감동을 선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우리독자들만의 복일 듯하다.

— 정혜옥 기자



공감의 폭 넓히는 문학적 진정성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독특한 개성

— 첫시집 「꿈의 이동건축」 펴낸 박주택씨

이 책 그 사람

일련의 문학이론들이
평론작업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공감의 비평'이
때론 이론으로는 얻지 못하는 작품의 핵심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시인 조정권씨는 '공감' 대신 '감지'라는
방식으로 "80년대의 여러 유형화된 감성과는
다"라며 "시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인공적으로
가려져 있"는 새로운 개성으로 시인 박주택씨
(33)를 주목했다. 이러한 공식적 평가에
힘입지 않더라도 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86년 한 일간지 신춘문에
당선시인 「꿈의 이동건축」과 이후 발표된
「아침나무 그림자가 나의 오른손 부위를 지날
무렵」 등과 같은 작품이 지닌 독특한 시풍을
인상깊게 기억할 것이다.

'광활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수사학으로 이른바 '인간존재'에 대한 정신적
탐구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당시의 시들은
문학에 있어서도 자의든 타의든 '집단'의
목소리를 필요로 했던 80년대 중반, 분명히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데뷔 5년만에 첫시집 「꿈의 이동건축」
(문학세계사)을 펴낸 박주택씨는 이러한
자신의 초기시에서 최근작에 이르는 그간의
궤적을 "어둡다"는 한마디로 자평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서정성에 집착하면서도 공유될 수
있는 시인 개인의 의식을 담아내려 했던
초기시에서 '완전개인'으로 침잠해 내면
깊숙한 무거운 언어들을 토해냈던 그는,
이즈음 "아침에 허겁지겁 출근을
하고 / 지각에 심장을 태우"는 일상적 풍경을
그러낼 정도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 그 스스로 어둠이 깔려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문학에 있어서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나 그동안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인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문학적 진정성이 아니겠느냐"
는 말에서 짐작되듯, 그가 그동안 시를
써오면서 터득한 시의 '핵심'은 바로 시의
'정직성'이다. 지나친 허구화와 상징화는
오호려 예의 그 '공감'의 폭을 축소시켜
'잘만든 시'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시'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새 비교적 생활의 여유를 느낄 만큼
"속인 중에서 가장 매끄럽게 돌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그는 이제, 최근작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생활하며 느낄 수 있는 시를 쓴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존재론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현실적인
사회의식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나를 객관화시켜 나 아닌
다른 존재와 같은 위치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집과 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켜 놓을 만큼
흡인력이 강한 도시문화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강남'이 요즘 그의 시에 자주
반영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불어 "정말로 사유를 통해서 만난 것들은
부스러져 없어졌다"는 詩作의 어려움도
앞으로 그가 감수해야 할 현실의 또다른
모습이다.

— 정소연 기자